



우석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신입생 유니폼 착복식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21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유니폼 착복 및 배지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리복과 학과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국민 건강과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조리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보순 휴먼테크융합대학장을 비롯한 학과 교수진, 호텔외식조리학과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신입생을 대표해 이진서 학생이 책임감과 윤리의식, 창의적 사고, 협업과 리더십, 실무 중심의 학습 자세 등을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했다.

박노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조리복을 입는 이 순간은 세 프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학업과 실습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소방서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합동소방훈련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21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과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복지관 내 화재 상황을 가상해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과 신속한 피난 유도 등 자위소방대의 초동 대응 능력 함양을 마련을 위해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상황 가정한 자위소방대의 옥내소화전 활용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피난 유도,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차량 진입로상 장애요인 확인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소방훈련과 화재 예방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감제 용지면 영등마을, 불법투기 장소에 양심화단 조성

감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영등마을 주민 등 총 10여명이 협력해 쓰레기 상습 투기 장소인 영등마을 입구(장신리 61-12)에 대형화분을 놓아 양심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용지면 장신리 61-12 일원(영등마을 입구)의 양심 화단 조성지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쌓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곳이다.

영등마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주변 쓰레기를 줍고 비울라와 다년생 식물인 측백나무를 대형화분에 심어 영등마을 입구를 불쾌한 무단투기 장소가 아닌 기분좋은 꽃 향기 가득한 장소로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등마을 김운희 이장은 "마을 입구에 쓰레기로 가득했던 곳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년 녹두’ 이광재 작가,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

‘문학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하며 동학 정신 꽃피웠다’는 평가 받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생생한 문학으로 되살린 이광재 작가가 제15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지난 16일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를 열고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할 주인공으로 이광재 작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시군구·동학 관련 단체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개인 8명, 단체 3곳의 서류를 접수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 유족회, 관련 단체, 시의회,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들의 공적과 증빙자료를 엄격히 심사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을 문학적으로 재조명하고 세대를 아우르며 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탁월한 업적을 세운 이광재 작가를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광재 작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집필위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또한 동학 관련 문학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냈다. 1989년 문예지 녹두꽃2에 단편소설 '아버지와 딸'을 발표했고, 1991년 같은 제목의 창작집을 발간했다.



이후에도 '사랑하면 할수록', '태풍의 눈', '내 가슴의 청보리밭', '폭풍이 지나간 자리', '봉준이, 온다', '나라 없는 나라'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최근에는 전봉준, 김덕령, 김개남, 송희옥 등 동학의 주역들이 청년 시절을 그린 소설 '청년 녹두'를 출간하며 문학계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자 선정 배경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세대를 초월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1963년생 중견 작가인 이광재 작가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이 전달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광재 작가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동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승과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인재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제51회 안천면민의 날, 면민의장 수상자 3명 선정

문화체육장 안창호 · 공익장 한안중 · 애향장 한귀석씨

진안군 안천면(면장 차재철)은 오는 26일 제51회 안천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면민의 장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문화체육장에 안창호(보한마을, 61), 공익장에 한안중(보한마을, 64), 애향장에 한귀석(서울특별시 구로구, 57) 씨다.

문화체육장 안창호 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안천면체육회 부회장,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안천면체육회 회장을 맡아 면민의 날과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향우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 한안중 씨는 2022년부터 안천면 농산물 한마당 큰장터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와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향장 한귀석 씨는 안천초등학교 출신으로 안천면의 크



안창호



한안중



한귀석

고 작은 행사를 비롯한 여러 소식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향우회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경 안천면 향우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천면민의 장은 오는 26일 안천면 소공원에서 열리는 '제51회 안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수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소방서, 신림여성의용소방대 신입 대장 임명

고창소방서는 지난 18일 고창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신림여성의용소방대 신입 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새 출발을 알렸다.

신임 대장으로 임명된 신미희 대장은 2015년 의용소방대에 입대한 이후 10년 가까이 지역 내 각종 재난현장과 봉사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신 대장은 꾸준한 헌신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원들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이번 임명을 통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여식에는 고창소방서장과 내·외근 간부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관내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여성대장의 출발을 축하했다. 고창소방서는 이번 임명을 계기로 여성의용소방대의 조직력 강화와 활동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장애이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무주장애이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2025년 4월 장애발생예방 주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이동형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무주군 내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총 1,000여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캠페인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장애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현장에서는 △장애 이해 슬로건 홍보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층 더 가까워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소나무재선충병과 함께 불철 주요 병해충인 참나무시들음병 확산방지를 위해 진안군, 임실군 일대 국유림에 측구장 면적 약 3배인 2.0ha를 대상으로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진나무좀'이라는 벌레가 곰팡이균을 몸에 지닌 채로 참나무에 침입하여 병을 감염시키며, 피해를 받은 나무는 줄기의 수분 통로가 막히면서 잎이 말라 7월부터는 빨갛게 말라 죽는다.

특히, 감염된 나무는 표고자목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버섯, 천마재배 등 산림소득 사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방제사업은 매개충이 본격적으로 우화되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이 적기이며, 끈끈이로트랩을 설치하여 매개충을 잡거나 감염목을 훈증처리하는 등 복합방제를 실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